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환경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 충남 홍성군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Satisfaction of QOL in Daily Living Environment

- in the area of Hongseung-gun -

박현옥\*\* · 이한나  
청운대학교 인테리어디자인학과

Park, Hyun-Ok\*\* · Lee, Hanna  
Dept. of interior design, Chungwoon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perception and satisfaction of QOL (Quality of Life) in daily living activities in the area of Hongseung-gun. The subjects included 467 residents in the a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factors affecting the satisfaction with daily living activities were three types such as social system & welfare service, living convenience & cultural service, and public administration & medical service. Second, those who are young, females, highly educated, and holding professional jobs showed lower satisfaction of QOL than their counterparts. Lastly, the surveyees were more satisfied with public administration & medical service than social system & welfare service and living convenience & cultural servic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applied to the decision-making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welfare-policy.

Key Words : Quality of Life, Hongseung-gun, Satisfaction in Daily Living

## I. 서론

미래사회에서의 인간은 다양성과 감성적 표현에 가치를 두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며, 삶의 목표 또한 물질적 풍요와 생활의 안정을 추구하던 생활양식에서 벗어나, 점차 '삶의 질(Quality of Life)'의 문제로 사회적 관심이 옮겨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지방의 소도시는 중앙의 수도권에 비해 많은 부분에서 열악하여 삶의 질의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삶의 질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기반 실태를 파악하고 도시와 농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삶의 질의 지표 설정이 요구된다. 이에 지역 사회의 비전에 대한 시민적 합의와 결정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요구가 반영되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인 홍성군을 대상으로 한다. 홍성군은 충남 서북부 행정 및 교통의 중심지로서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병합한 후, 1914년 총독부령 111호로 부(府), 군(郡), 면(面)을 폐합시키면서 홍주군(洪州郡)에서 홍성군(洪城郡)으로 개칭하였으며, 현재 2읍(邑) 9면(面)의 행정구역이 되어있다. 인구는 2002년 현재 약 9만 5천여 명으로 감소 추세이나 노인인구는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제는 1차 산업 47.7%, 2차 산업 2.5%, 3차 산업 49.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축산업의 경우 전국 제1의 축산단지로 성장하였다. 우리나라도 1992년 6월 브라질에서 UN환경개발회의가 개최되고 리우선언인 아젠다 21이 채택되면서 지방정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지역주민의 합의에 의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에 1997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의제21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에 2004년 홍성군에서도

\* 본 연구는 2004학년도 청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Park, Hyun-Ok  
Tel: 041) 630-3222, Fax: 041) 630-3392  
E-mail: phoindes@chungwoon.ac.kr

지방의제를 설정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이는 환경문제 해결에 그 중요성을 두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행복지수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일상생활환경의 만족도와 선행되어야 할 문제를 동시에 밝히고자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홍성군민의 일상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선행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홍성군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일상생활환경을 요인별로 유형화한다. 둘째, 홍성군민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일상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환경 문제에 대한 가장 선행되어야 할 문제를 파악한다. 이를 통하여 홍성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일상생활환경 문제를 제시하고자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인 홍성군이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적 자료로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 II. 삶의 질과 만족도에 대한 이론적 배경

삶의 질이란 물질적/ 비물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일상생활의 외형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내면적 심리상태까지도 포함된다. 개인의 가치의식이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환경 등을 포함한다. 삶의 질이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절대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한 사회의 경제, 정치, 사회의 발전 수준과 사회구성원들의 가치관과 관습에 따라 변화되는 상대적인 개념인 것이다. 그래서 개인 자신에 의해 경험되어지는 일상생활에 대한 느낌인 만족감이나 행복감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본다. 이렇게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을 만족감이라고 볼 때 이는 크게 주관적인 요소와 객관적인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관적인 요소는 성취감, 애정과 친밀감, 자유와 자율 등이며 소득수준, 소음정도, 주거환경, 교통사정 등은 객관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삶의 질의 다양성과 상대성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한 국가나 사회가 경제, 정치, 사회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그 구성원들이 요구하거나 달성하고자 하는 삶의 질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삶의 질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삶의 질은 외부의 객관적 기준이나 조건에 의해 정의하는 것으로 이는 개인의 삶의 질은 사회·경제적 지표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는 가정 하에 소득수준·구매능력·교육수준·여가시간·건강상태 등이 포함된다. 둘째, 삶의 질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상태로 수입, 건강, 사회적 지위 등 사회·경제적 지위를 포함한 삶의 객관적 상황이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개인의 정서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인간의 삶의 질은 물질적·환경적 외부 요인에 대하는 내적인 태도나 정서 등의 성격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삶의 질이란 행복한 삶으로 인간의 삶이 좋은 상태 혹은 바람직한 상태를 뜻하는데, 이는 다면적·포괄적인 개념으로 사람의 물질적·신체적 수준 내지 조건뿐만 아니라 문화적·사회적 환경과 개인의 심리적 상태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삶의 질은 안녕 혹은 복지(well-being), 주관적 복지(subjective well-being), 생활만족(life satisfaction), 행복(happiness) 등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김기옥, 2005). 즉, 삶의 질은 객관적 차원에서 경제적 생활수준, 자연 상태(자연자원의 개발, 환경오염의 정도), 사회적인 생활환경(주택, 전력, 교통, 의료, 음식 섭취, 교육, 여가 및 문화 등)과 가족적 생활환경(친구, 집안 일, 결혼, 자녀 양육, 건강, 정부, 직업 등) 등을 포함하는 지표이며, 주관적 차원으로는 정신적, 정서적, 심리적(선택과 결단의 자유, 사랑, 자아, 실현, 만족감 등)평가 및 생활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이다(안승호, 김태용 외 3인:2000, 김귀곤 외 3인:1990, 최열 외 2인: 2001).

미국 워싱턴의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는 소득, 실업, 빈곤, 교육, 건강, 정신건강, 대기오염, 공공질서, 교통안전, 인종평등, 지역사회 관심, 주민참여, 사회분리 등 14개이며, 캐나다 밴쿠버 시의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는 8개 부문으로 인구자원, 지역사회유연성, 고용의 질, 주거의 질, 지역사회 스트레스, 지역사회 건강, 지역사회 안전, 지역사회 참여도 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삶의 질 지표설정을 위한 연구로 1988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자연환경, 주거환경, 보건사회, 교육문화, 경제, 공공안전 등 6개 부문 22개 영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송인성(2004)의 연구에서는 도시환경, 자연환경, 생활편의 시설, 경제활동, 교육환경, 여가·문화생활, 교통환경, 가정 및 사회생활 등 8개 영역으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이상의 삶의 질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을 정리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 사용된 일상생활환경지표는 선행연구와 군지역인 홍성군의 특성상 부재한 쇼핑 및 사회시스템을 보완하여 9개 부문의 15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일상생활환경의 조각적 정의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행위와 아닌 사회 속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관련되는 제반의 행정, 도시, 사회문화 환경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는 홍성군의 삶의 질의 지표를 설정하는데 의미

〈표 1〉 삶의 질을 측정하는 국내외 선행연구들의 내용

한국 (송인성)	도시환경, 자연환경, 생활편의시설, 경제활동, 교육환경, 여가·문화생활, 교통환경, 가정 및 사회생활(8개영역)
프랑스	인구, 주거, 안전, 교통, 경제, 환경, 문화, 아동, 공동생활, 건강, 상권, 운동(12지표)
워싱턴	소득, 실업, 빈곤, 교육, 건강, 정신건강, 대기오염, 공공질서, 교통안전, 인종 평등, 지역사회 관심, 주민참여, 사회분리(12지표)
밴쿠버	인구자원, 지역사회유연성, 고용의 질, 주거의 질, 지역사회 스트레스, 지역 사회 건강, 지역사회 안전, 지역사회 참여도(8개영역)
진주시	주거환경, 가족 및 친척·이웃관계, 종교, 행정서비스, 의료서비스, 사회복지시설, 정보환경, 교통환경, 수질환경, 대기환경, 상하수도, 자연환경, 쓰레기, 문화시설, 역사유적(15부문)
홍성 YMCA	물가, 교통, 주거, 교육, 문화, 복지, 치안, 공해, 행정, 직장, 보건·의료, 자연환경, 공동체의식(13개문항)

있는 척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홍성 YMCA(2002)의 홍성군민의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보고서에 의하면, 홍성군에 대한 군민의 도시 이미지는 농축산도시(62.5%), 전원도시(7.4%)로 인식하고 있으며, 홍성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약간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홍성의 물가가 매우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문화여건, 복지여건이 나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직장, 교육환경, 범죄, 병원, 교통 등 대분의 영역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군민들이 대체로 만족하는 것은 자연환경으로 나타났다. 둘째, 홍성군민의 연령에 따른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30대-40대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60대 이상에서는 삶의 질에 대한 만족점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20대부터 50대까지는 삶의 질이 낮다고 느끼고 있으며 60대 이상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보다 높게 느끼고 있다. 셋째,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교육정도(대졸이상)가 높은 경우, 월평균 가계 소득이 높은 경우(400만원이상)가 낮게 나타났으며, 성별이나 거주기간에 따라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홍성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제점으로 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 문화시설의 문제로 학력이 높은 우수 인력들의 지역 이탈현상과 맞물려 홍성 청소년들의 학력저하가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생활체육 및 놀이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타 농촌 지역이 안고 있는 열악한 대중교통과 이에 따른 자가용 차량의 증가, 그에 미치는 못하는 주차시설과 도로사정이 문제로 나타났다. 셋째, 저소득 계층, 노인문제의 경우도 고령사회, 핵가족사회의 도래로 인해 더 이상 가족의 책임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다. 빈곤에 대

한 책임소재도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있다고 답하고 있어 국가지원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해 자원봉사의 의지가 높아 사회단체 등과 연계가 된다면 약간은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공동체의식도 높아질 것이다. 넷째,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평균적으로 대체로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우울증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68.0%가 우울증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20~40대까지는 건강개선을 위해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자발적으로 운동을 하려는 의지가 있으며, 50대는 깨끗한 자연 및 도시환경의 조성, 60대 이상은 저렴한 비용의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III. 연구 방법

####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조사대상자는 홍성군 소재 11개 읍·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각 직업별 골고루 선정하였다. 조사 시기는 2004년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하였다.

이는 홍성의제21 수립을 위한 홍성군민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조사와 함께 실시되었다. 본 조사는 홍성군을 통하여 각 읍과 면사무소, 학교로 배포하여 전문가 집단과 일반군민 등에게 설문지를 직접 배부하고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총 500부를 배포하여 483부(96.6%)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467부(93.8%)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 2. 측정도구의 구성

본연구의 측정도구인 설문지의 문항구성은 조사대상 응답자들의 속성 파악을 위한 사회·인구통계학적 변인(8 문항)과 일상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측정문항(15 문항),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문제(1문항) 등을 포함하여 총 2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는 주택형태, 소득수준, 성별, 학력, 연령, 직업, 거주기간, 거주 지역 등이다. 직업의 종류는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였으며, 태안군과 청양군의 의제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의 직업분류에 따라 설정하였다.

일상생활환경의 항목은 쇼핑 및 생활편의시설/ 쇼핑 및 생활편의시설의 가격과 품질 그리고 서비스/ 교육환경/ 대중교통 체계 및 서비스/ 도로정비 및 교통질서/ 의료시설/ 의료서비스/ 경찰의 민생치안정도/ 민원행정 서비스/ 생활쓰레기 및 환경관리/ 생활용수의 공급과 관리/ 지역의 산업화와 도시화 정도/ 문화·체육·공연·전시·관광 및 레저시설, 사회복지시설(노인·장애인·아동·자원봉사자 등)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 등 1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일상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리커트트의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아주 그렇다'에 5점을 주어 측정하였다. 또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일상생활환경(15문항) 중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과제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설문도구에 의해 연구문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일상생활환경의 만족도를 밝혀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선행되어야 할 일상생활환경의 문제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설문 항목간의 신뢰도는 내적일치법으로 크론바흐의 알파계수를 산출하고, 문항들의 내용 타당도는 주거학, 실내디자인학, 서비스경영학 전공자 각각 1인에게 안면타당도로 검증하였다. 또한 문항간의 구성타당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WIN 1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기법으로는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값에 의한 설문 문항의 신뢰도 분석과 요인분석, 조사 대상자들의 만족도 분석을 위한 기술통계 분석, 응답자들의 속성을 파악하기 위한 빈도분석, 주요 집단 간의 차이검정을 위한 t-검정과 분산분석(ANOVA) 및 단칸의 Multiple Range Test 등을 실시하였다.

## IV. 조사 분석 및 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67%이고 여자는 33%이며 학력은 고등학교와 대학을 마친 경우가 82.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대상자의 성별이 남자가 많은 것은 조사방법이 홍성군을 통하여 읍과 면 사무소 그리고 학교로 배포되어 전문 직업에 속한 대상자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보다 정책입안과 정책 실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30대와 40대가 55.5%로 나타났다. 또한 홍성군민들의 전문분야 및 직업 분포로는 '서비스업(사무직·교직원 포함)·상업·자유업 종사자'가 24.6%, '군·읍·면의 경찰행정직 공무원'이 23.5%, '전문직(의사·법률·세무·연구원·교수 등)종사자'가 7.8%, '토목·건축·제조업 종사자'가 5.9%, '환경관련 전문직 종사자'가 2.6% 등으로 각 분야별로 고르게 표집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주택의 거주기간으로는 31년 이상이 36.6%, 21년-30년이 22.7%, 11-20년 이 18.2%, 5년 이내가 13.7%, 6-10년 이 8.8%로 나타나 11년 이상 장기 거주자의 비율이 77.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거주하는 주택형태는 '단독주택'이 47.1%, '아파트'가 37.7%로 나타났다. 조사지역은 '홍성읍'이 58.9%, '광천읍' 7.9%, '홍북면' 5.8%, '홍동면' 4.9%, '금마면' 4.1%, '서부면' 3.4% '구항면' 3.4%), '갈산면' 3.0%, '은하면' 2.4%, '결성면' 1.7%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2>와 같다.

### 2. 일상생활환경의 요인분석

홍성군민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생활환경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베리맥스 직교회전 방식을 이용하여 고유값이 1이상인 것과 요인부하량이 0.5 이상인 요인만을 선택하여 3개의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다음<표 3>과 같다. 이 세가지 요인은 첫째, 사회시스템 및 복지수준으로 5개 항목이, 두 번째 요인으로는 생활편의 및 문화수준으로 5개 항목, 세 번째 요인으로는 행정 및 의료수준으로 네 개 항목이 추출되었다. 이러한 세 가지 요인은 일상생활환경에 대한 홍성군민의 만족도를 54.49% 설명해주며, 종합적인 신뢰도는 크론바흐의 알파값이 .8930\*\*\* 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N=467)

일반사항		f (%)
성별	남	313 (67.0)
	여	154 (33.0)
학력	초·중졸	39 (8.4)
	고등졸	181 (38.9)
	대졸	203 (43.7)
	대학원졸이상	42 (9.0)
연령	20대	114 (22.2)
	30대	156 (33.3)
	40대	127 (27.1)
	50대 이상	72 (15.4)
직업	농·축·수산업	65 (14.0)
	토목·건축공업	23 (5.0)
	상업·자유업·서비스업	114 (24.6)
	환경관련직	12 (2.6)
	전문직	36 (7.8)
	공무원	109 (23.5)
	주부 및 학생	105 (22.7)
거주 기간	5년 이내	64 (13.7)
	10년 이내	41 (8.8)
	20년 이내	85 (18.2)
	그 이상	277 (59.3)
주택 형태	단독주택	220 (47.1)
	아파트	176 (37.7)
	다세대 및 기타	71 (15.2)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52 (11.2)
	200만원 미만	172 (37.1)
	300만원 미만	149 (32.2)
	그 이상	90 (19.4)
거주 지역	홍성읍	275 (58.9)
	그 외 읍면	192 (41.1)

### 3. 일상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

홍성군민의 일상생활환경에 관한 만족도는 행정 및 의료수준(2.89), 사회시스템 및 복지수준(2.83) 그리고 생활편의 및 문화수준(2.56) 순으로 높게 나타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생활편의 및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불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14개 문항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보통이하인 2.76으로 여러 시설이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요인 I인 사회시스템과 복지 측면에서는 지역의 산업화와 도시화가 점점 나아지고 있다(3.01)고 약간의 만족을 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문항인 생활용수, 쓰레기, 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두번째 요인인 생활편의 및 문화 측면에서는 문화환경(2.33), 쇼핑환경(2.51), 교통환경(2.56) 그리고 교육환경(2.76) 순으로 불만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행정 및 의료 측면에서는 민원행정서비스가 나아지고 있다(3.15)고 보았으며, 의료시설과 서비스(2.74) 및 민생치안(2.79)도 역시 보통이하의 낮은 점수로 나타나 불만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4.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일상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검증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일상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주택형태, 소득수준, 성별, 학력, 연령, 직업 그리고 거주 지역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득수준과 주택형태에 따라서는 각 항목별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

〈표 3〉 일상생활환경의 요인분석

요인	항목	요인값	고유치	설명률(%)
요인 I 사회시스템 및 복지수준 (6문항)	S15 사회생활시스템	.698	3.288	20.55
	S10 생활쓰레기 및 환경	.666		
	S11 생활용수 공급 관리	.653		
	S12 경제산업화·도시화	.629		
	S14 사회복지시설	.593		
요인 II 생활편의 및 문화수준 (5문항)	S04 대중교통체계	.757	3.243	20.27
	S01 쇼핑·생활편의시설	.688		
	S03 교육환경	.655		
	S05 도로정비 및 교통질서	.638		
	S13 문화관광·레저	.633		
요인 III 행정 및 의료수준 (4문항)	S08 경찰 및 민생치안	.735	2.187	13.67
	S09 민원행정 서비스	.629		
	S07 의료서비스	.601		
	S06 의료시설	.534		
총설명력				54.49

〈표 4〉 일상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

요인	항목	M	S.D
I. 사회 시스템 및 복지수준	S15 우리군의 사회시스템은 상위수준이라고 생각한다.	2.70	.81
	S10 생활 쓰레기 및 환경관리는 우수한 편이다.	2.77	.80
	S11 생활용수(상수도)의 공급 및 관리는 잘되고 있다.	2.98	.76
	S12 지역의 산업화·도시화 정도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	3.01	.88
	S14 사회복지시설 등은 훌륭하게 관리되고 있다.	2.68	.84
	평균	2.83	
II. 생활편의 및 문화수준	S04 대중교통 체계 및 서비스는 잘되어 있다.	2.56	.83
	S01 쇼핑 및 생활편의시설은 충분한 편이다.	2.51	.86
	S03 교육환경은 훌륭한 편이다.	2.76	.80
	S05 도로정비 및 교통질서는 잘되어 있다.	2.62	.86
	S13 문화관광 및 레저 시설은 충분한 편이다	2.33	.81
	평균	2.56	
III. 행정 및 의료수준	S08 경찰안전 및 민생치안 정도는 좋은 편이다.	2.79	.84
	S09 민원행정서비스는 훌륭하다.	3.15	.87
	S07 의료시설의 수준과 서비스는 좋은 편이다.	2.74	.85
	S06 의료시설의 수는 충분한 편이다.	2.86	.88
	평균	2.89	
총평균		2.76	

지 않아 소득수준과 주택형태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동일한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즉, 일상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소득수준과 주택형태와는 관계없이 전반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일상생활환경이므로 집단 간 동일한 의견이며, 개인특성인 성별, 학력, 연령, 직업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부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일상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 차이검증에서는 요인II 에서만 유의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편의시설과 교육환경, 대중교통체계와 문화관광 시설 측면에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낮은 점수를 주어 그 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학력에 따른 일상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요인II 와 요인III 에서 4개 문항에 유의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II 에서는 대중교통체계와 도로질서 및 정비에 대하여 초·중·고등학교 졸업의 경우가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요인III 에서도 의료시설의 수준과 의료수준 및 서비스에 대하여 집단 간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원졸 이상의 학력인 집단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학력이 일상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에 유의적인 차이를 갖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일상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표 5〉 성별에 따른 일상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

요인 및 항목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요인II 생활편의 및 문화수준	남 (312)	2.62	.86	4.185***
	여 (153)	2.27	.82	
요인III	남 (312)	2.83	.78	2.730**
	여 (153)	2.62	.83	
요인II 생활편의 및 문화수준	남 (312)	2.66	.83	3.399**
	여 (153)	2.38	.81	
요인III	남 (312)	2.40	.84	2.535*
	여 (153)	2.19	.84	

\* p&lt;.05, \*\* p&lt;.01, \*\*\* p&lt;.001

〈표 6〉 학력에 따른 일상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

요인 및 항목	학력 (N)	평균	표준편차	DMR	F	
요인II	초중졸 (39)	2.79	.89	b	2.727*	
	S04 대중교통체계	고등졸 (179)	2.62	.81		b
	대학졸 (203)	2.53	.81	ab		
	대학원졸 (42)	2.31	.90	a		
요인III	초중졸 (39)	2.85	1.04	b	2.668*	
	S05 도로정비 및 교통질서	고등졸 (180)	2.68	.82		b
	대학졸 (202)	2.57	.86	ab		
	대학원졸 (42)	2.36	.85	a		
요인III	초중졸 (39)	3.13	1.00	b	2.628*	
	S06 의료시설의 수준	고등졸 (181)	2.93	.83		ab
	대학졸 (201)	2.77	.90	a		
	대학원졸 (42)	2.74	.77	a		
요인III	초중졸 (39)	3.05	.65	b	3.927**	
	S07 의료수준 및 서비스	고등졸 (177)	2.82	.85		ab
	대학졸 (203)	2.66	.90	a		
	대학원졸 (42)	2.52	.63	a		

\* p<.05, \*\* p<.01

참고: 다른 문자로 표시된 그룹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표 7〉 연령에 따른 일상생활환경 만족도의 차이

요인 및 항목	연령 (N)	평균	표준편차	DMR	F	
요인 I	20대 (114)	2.51	.70	a	2.643*	
	S10 생활쓰레기 및 환경관리	30대 (155)	2.77	.71		b
	40대 (127)	2.86	.88	b		
	50대 (71)	2.98	.71	b		
요인II	20대 (114)	2.81	.77	a	3.584**	
	S11 생활용수 공급 및 관리	30대 (156)	3.03	.85		b
	40대 (127)	3.08	.68	b		
	50대 (71)	3.25	.71	b		
요인III	20대 (114)	2.15	.94	a	8.460***	
	S01 쇼핑 및 생활편의시설	30대 (155)	2.39	.85		ab
	40대 (127)	2.72	.75	bc		
	50대 (71)	2.90	.88	c		
요인III	20대 (114)	2.47	.99	ab	5.587***	
	S03 교육환경	30대 (156)	2.61	.81		ab
	40대 (127)	2.91	.68	bc		
	50대 (72)	2.98	.77	c		
요인III	20대 (114)	1.98	.95	a	2.335*	
	S13 문화관광·레저시설	30대 (155)	2.31	.88		b
	40대 (126)	2.46	.76	b		
	50대 (71)	2.38	.75	b		
요인III	20대 (114)	2.50	.84	a	2.268*	
	S08 경찰민생·안전치안	30대 (155)	2.84	.92		ab
	40대 (127)	2.86	.72	ab		
	50대 (72)	2.84	.85	ab		
요인III	20대 (114)	2.80	1.10	a	2.822*	
	S09 민원행정서비스	30대 (155)	3.19	1.00		b
	40대 (127)	3.25	.73	b		
	50대 (72)	3.21	.81	b		

\* p<.05, \*\* p<.01, \*\*\* p<.001

참고: 다른 문자로 표시된 그룹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결과, 세 가지 요인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유의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I에서는 생활쓰레기관리와 생활용수, 요인II에서는 쇼핑 및 생활편의시설, 교육환경과 문화관광 및 레저 시설, 요인III에서는 민생안전과 민원행정 등 7개 문항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은 집단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I의 생활쓰레기와 생활용수관리, 요인II에서 문화관광시설과, 요

인III에서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하여 20대와 그 이상으로 만족도의 차이가 두 그룹으로 나타나 특히 20대 불만도가 높음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또한, 요인II의 쇼핑 및 생활편의시설과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50대 이상과 그 이하로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나 연령이 높은 50대 이상은 만족도가 높은 반면 20대에서 40대까지는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시에 연령이 젊은 집단이 그

〈표 8〉 직업에 따른 일상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

요인 및 항목	직업 (N)	평균	표준편차	DMR	F
요인I 생활용수 공급 및 관리	농·축·수산업 (64)	3.06	.69	ab	2.072*
	토목건축 (23)	3.00	1.00	ab	
	서비스직 (114)	2.92	.87	ab	
	환경 관련직 (12)	2.82	.75	ab	
	전문직 (36)	2.74	.70	a	
	공무원 (109)	3.17	.72	b	
	주부 및 학생 (68)	2.97	.67	ab	
요인II 쇼핑 및 생활편의시설	농·축·수산업 (64)	2.89	.79	c	3.790**
	토목건축 (23)	2.68	.72	bc	
	서비스직 (114)	2.45	.94	ab	
	환경 관련직 (12)	2.50	.67	ab	
	전문직 (36)	2.28	.85	ab	
	공무원 (109)	2.58	.76	ab	
	주부 및 학생 (68)	2.30	.86	ab	
요인II 대중교통체계 및 서비스	농·축·수산업 (64)	2.81	.75	c	2.551*
	토목건축 (22)	2.64	.73	bc	
	서비스직 (114)	2.59	.84	ab	
	환경 관련직 (12)	2.33	.89	ab	
	전문직 (36)	2.17	.74	a	
	공무원 (109)	2.61	.78	bc	
	주부 및 학생 (69)	2.45	.83	ab	
요인II 교통정비 및 교통질서	농·축·수산업 (64)	2.84	.88	c	3.300**
	토목건축 (23)	2.91	.73	c	
	서비스직 (114)	2.53	.90	ab	
	환경 관련직 (12)	2.42	1.08	ab	
	전문직 (36)	2.22	.76	a	
	공무원 (108)	2.74	.77	bc	
	주부 및 학생 (69)	2.57	.83	ab	
요인II 문화관광·레저시설	농·축·수산업 (65)	2.52	.69	ab	2.247*
	토목건축 (23)	2.70	.88	b	
	서비스직 (114)	2.32	.92	ab	
	환경 관련직 (12)	2.42	.79	ab	
	전문직 (36)	2.08	.73	a	
	공무원 (109)	2.36	.81	ab	
	주부 및 학생 (68)	2.22	.83	a	
요인III 민원행정 서비스	농·축·수산업 (64)	3.33	.67	b	7.139***
	토목건축 (23)	3.09	1.12	ab	
	서비스직 (114)	2.79	.91	a	
	환경 관련직 (12)	2.92	.51	ab	
	전문직 (36)	3.14	.96	ab	
	공무원 (109)	3.54	.71	ab	
	주부 및 학생 (68)	3.07	.94	ab	

\* p<.05, \*\* p<.01, \*\*\* p<.001

참고: 다른 문자로 표시된 그룹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요구도가 더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직업에 따른 일상생활환경의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요인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유의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I에서는 생활용수 공급 및 관리, 요인II에서는 쇼핑 및 생활편의시설, 대중교통체계와 교통질서, 문화관광 및 레저 시설, 요인III에서는 민원행정 서비스 등 6개 항목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요인I의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농·축·수산업종사자가 가장 높게, 공무원이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요인II의 쇼핑 및 생활편의시설과 문화관광 레저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직 종사자가 가장 낮은 점수를 주었으며, 대중교통체계와 질서에 대해서는 토목·건축 관련 종사자가 높게 평가하였다. 요인III의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이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직업의 특성상 관련 사항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농·축·수산업 종사자가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고, 전문직과 서비스직 종사자의 불만족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거주기간에 따른 일상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요인II와 요인III에서 4개 문항에 유의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II에서는 쇼핑 및 생활편의시설과 대중교통체계, 도로질서 및 정비, 요인III에서는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거주기간이 5년 이내이거나 20년 미만인 집단이 낮은 점수를, 거주기간이 20년 이상인 집단이 높은 점수를 주어 단기간 거주한 경우 그 불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거주기간이 긴 경우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거나 연령이 높은 경우가 많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거주 지역은 홍성군의 11개 읍면을 중심지역인 홍성읍과 그 외 지역으로 크게 두 집단으로 나누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요인I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

〈표 9〉 거주기간에 따른 일상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

요인 및 항목		거주기간 (N)		평균	표준편차	DMR	F
요인II	S01 생활편의시설	5년 이내	(63)	2.21	.79	a	6.157***
		6-10년	(41)	2.56	.74	b	
		11-20년	(105)	2.44	.90	ab	
		21년 이상	(199)	2.55	.85	ab	
	S04 대중교통체계	5년 이내	(63)	2.41	.81	a	6.317***
		6-10년	(41)	2.39	.80	a	
		11-20년	(105)	2.40	.91	a	
		21년 이상	(199)	2.63	.79	b	
	S05 도로정비 및 교통질서	5년 이내	(63)	2.41	.90	a	5.459***
		6-10년	(41)	2.44	.71	a	
		11-20년	(105)	2.58	.85	a	
		21년 이상	(199)	2.67	.85	b	
요인III S09 민원행정서비스	5년 이내	(63)	3.28	2.85	ab	3.121*	
	6-10년	(41)	3.58	3.01	b		
	11-20년	(105)	3.11	2.67	a		
	21년 이상	(199)	3.39	3.11	b		

\* p<.05, \*\*\* p<.001

참고: 다른 문자로 표시된 그룹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표 10〉 거주 지역에 따른 일상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 검증

요인 및 항목		지역 (N)	평균	표준편차	t
요인II	S05 도로정비 및 교통질서	홍성읍 (274)	2.49	.83	-4.006***
		그 외 (191)	2.81	.88	
요인III	S06 의료시설수준 및 서비스	홍성읍 (273)	2.68	.84	-2.010*
		그 외 (190)	2.84	.86	
	S09 민원행정 서비스	홍성읍 (275)	3.07	.90	-2.700**
그 외 (188)	3.29	.82			

\* p<.05, \*\* p<.01, \*\*\* p<.001

〈표 11〉 일상생활환경에 대한 선행되어야 할 문제

요인	항목	f	%	순위	요인순위
I. 사회시스템 및 복지수준	S15 우리군의 사회시스템	20	3.2	11	154 (24.6%) 2위
	S10 생활 쓰레기 및 환경관리	58	9.3	3	
	S11 생활용수(상수도)의 공급 및 관리	16	2.6	13	
	S12 지역의 산업화·도시화	22	3.5	10	
	S14 사회복지시설	38	6.1	7	
II. 생활편의 및 문화수준	S04 대중교통 체계 및 서비스	48	7.7	5	370 (59.4%) 1위
	S01 쇼핑 및 생활편의시설과 서비스	166	26.6	1	
	S03 교육환경	28	4.5	9	
	S05 도로정비 및 교통질서	54	8.7	4	
	S13 문화관광 및 레저 시설	74	11.9	2	
III. 행정 및 의료수준	S08 경찰 민생치안	30	4.8	8	100 (16.0) 3위
	S09 민원행정서비스	10	1.6	14	
	S07 의료서비스	40	6.4	6	
	S06 의료시설	20	3.2	11	

나지 않았고 요인II 와 요인III 에서 선택적으로 유의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II 에서는 도로질서 및 정비, 요인III 에서는 의료수준과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하여 홍성읍에 거주하는 경우가 그 외 10개 읍면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홍성읍의 경우 공무원이나 전문직이 많고, 상대적으로 거주기간도 짧아 그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 5.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문제

조사대상자에게 일상생활환경 14개 항목에 대하여 가장 선행되어야 할 문제를 1개 또는 2가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항목 간에는 가중치를 두지 않았으며 그 누적 빈도수로 그 중요도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일상생활환경에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문제로 요인II, 요인I 그리고 요인III의 순서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구도가 가장 높은 요인II 에서는 쇼핑 및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요구도(26.6%)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문화관광 및 레저시설(11.9%), 도로정비 및 교통질서(8.7)순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요인I에서는 생활 쓰레기 및 환경관리(9.3%), 사회복지시설(6.1%), 지역의 산업화와 도시화(3.5%) 순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요인III 에서는 의료서비스(6.4%), 경찰안전 및 민생치안(4.8%), 의료시설(3.2%)순으로 나타났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홍성군을 대상으로 군민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일상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필요한 순위를 밝혀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삶의 질에 만족을 주는 일상생활환경을 3가지 요인으로 유형화하였다. 요인I은 사회시스템 및 복지수준, 요인II는 생활편의 및 문화수준, 요인III은 행정 및 의료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요인III> 요인I> 요인II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득수준과 주택형태에 따른 일상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에는 집단 간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소득수준과 주택형태에 관계없이 일상생활환경에 공통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일상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여성은 쇼핑과 생활편의시설에 대하여 불만족도가 높으며, 높은 학력, 연령이 낮은 집단, 직업이 전문직과 공무원, 거주기간이 짧은 경우와 홍성읍에 거주하는 집단의 일상생활 전반에 있어서 불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환경에 대한 가장 선행되어야 할 문제를 파악해 본 결과, 쇼핑 및 생활편의시설, 문화관광 및 레저시설과 생활쓰레기 및 환경관리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를 세 가지 요인별로 살펴보면, 요인II 인 생활편의 및 문화수준, 요인I 인 사회시스템 및 복지수준 그리고 요인III 인 행정 및 의료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 홍성

군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초조사연구의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아직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이하로 낮게 나타났으며, 사회시스템과 문화, 복지측면에서의 불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홍성군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이 요구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홍성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홍성군민의 거주지역과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고려하여 쇼핑과 문화관광 시설의 대대적 확충, 문화관광 및 레저시설, 교육시설과 도로환경이 정비되어야 하며, 사회생활시스템, 생활용수와 쓰레기, 지역 경제의 산업화와 도시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의료시스템과 민원서비스가 향상되어야 할 것을 제언한다. 동시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별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실행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삶의 질, 홍성군, 일상생활환경 만족도

### 참 고 문 헌

김기욱, 김순옥, 황선진, 이수진, 현은자, 최인수, 유현정 (2005) ESM을 통해 본 대학생의 주관적 삶의 질-

정서, 인지적 효율성, 만족도의 측면에서-. 대한가정학회지, 43(2). 203~229.

김귀곤, 이주원, 최영주, 무내 화언, 이동근 (1990) 도시 삶의 질 지표에 관한 연구(I). 한국조경학회지, 18(2), 127~142.

김태용, 오승정, 태기남, 안희정 (2000)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수준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2(2). 135~155.

송인성 (2004) 도시의 삶의 질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광주시와 벤쿠버 시를 사례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6(2), 107~140.

안승호 (2004) '삶의 질' 연구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사회적 시스템의 관점에서 본 소비환경의 '사회적 품질'. 품질경영학회지, 33(2). 51~63.

최 열, 이성호, 김지현 (2001) 대도시 삶의 질과 토지이용간의 상관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36(4), 113~127.

홍성 YMCA (2002) 홍성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0대 지표 만들기-홍성군 시민의식과 삶의 질에 관한 조사보고서-. 제25차 홍성포럼 자료집.

홍성군 통계연보 (2003).

홍성군 (2004) 홍성의제21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http://www.dir.empas.com> 두산세계대백과

(2005. 10. 31 접수; 2006. 01. 24 채택)